

지금 이 시각

비영리 월간아카이브
발행 _ pighaedlab

2022. 5
첫번째

오종원

나는 왜 또 쓸데
없는 짓을 하고 있을까

이규환

끝.내는 해피엔드,

이은우

무심한 듯
애정 어리게 바라보기

석민정

우리 결혼할 수 있을까

손승범

끝나지 않는 경쟁

TIME NOW





앞 표지 :

2022. 3.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전태일기념관에 손승범 작가의 작품 <민들레>가 걸리고 있다. 강영민 작가의 작품이 뒤에서 쳐다보고 있다.

뒷 표지 : 게시된 <민들레> 걸개 그림
(기획 오종원 / 전태일기념관 전시)

그림 손승범 / 디자인 캇치 크리에이티브
사진 오종원

지금 이시각

비영리 월간아카이브
발행 _ pighaedlab

<지금 이시각>은 월간 아카이브 프로젝트로, 매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자 기획하였습니다. 현재는 시각예술작가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있지만 꼭 특정 분야의 콘텐츠 중심이기보다 예술인 및 창작가라면 편하게, 무엇인가를 남길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을 진행하며 5월 필진들에게 이야기 하기를, 줄 수 있는 것은 없고 나름의 보람이라도 만들어 주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딱 6개월만 부탁하였습니다. 6개월, 정말 귀한 시간을 얻어냈습니다. 편집자이자 기획자인 저조차도 삶에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닌지라 결코 쉽지 않았지만, 어쨌든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꼭 많은 분들까지 바라지도 않으니, 보시는 분들이 나름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시각>의 영문명은 작가이자 연구자, 기획자인 염인화씨가 정해줬습니다.



나는 왜 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을까

오종원
문화예술인력 /
피그헤드랩 운영

얼마전 여자친구와 조금 다툴 일이 있었다. 그 이유는 이러한데, 나는 휴식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미대를 다녔을 때부터 그러하였던 것 같다. 내가 다루고 있는 학문의 위기를 상대적으로 일찍 파악했던(것 같은) 나는 어떠한 방법은 모르는 체 휴식을 두려워하였다. 혹자는 부지런이라 불러 주기도 하였지만, 지금까지 약간의 강박처럼 존재하고 있다. 마치 혜엄을 멈추면 죽는다는 참치처럼, 시도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무능력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그래서 나는, 대체로 바쁘게 살아오려고 노력하였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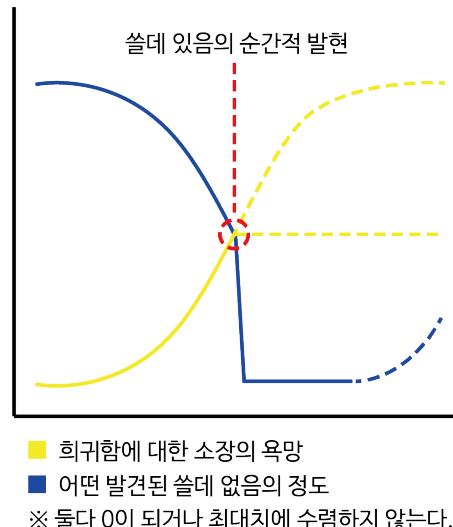
그러던 중 결국 일이 생겼다. 여자친구는 언젠가부터 내가 쓸데없는 일들에 너무 매진한다고 타이르곤 하였다. 집안일을 미루거나 키우는 도마뱀들과 놀아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이 약해서 조금만 피곤해도 골골거렸다. 성격은 또 얼마나 예민해서 스트레스를 달고 사는지, 잠을 못 자 뒤척이는 것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다. 어느 날 내가 갑자기 혼자 신나, <지금 이시각>이라는 월간 아카이브 아이디어를 떠들고 났더니 나지막하게 이야기하더라. “언제까지 쓸데없는 짓을 자꾸 벌릴 꺼야.”

크게 섭섭할 이야기는 아니었다. 작년 이맘때 결국 응급실로 실려갈 일이 있었다. 그때 내 옆에서 보호자로 대기하고 있었을 때의 미안함은 결코 작지 않더라. 돌이켜 보면 내가 벌이는 일들 대부분은 다소 스트레스를 안고 가는 일들이었다. 요 몇 년간의 일들만 생각해보아도 오히려 들어간 내 기회비용에 비해, 보람 말고 돌아오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좋았었다. 물론 무작정 돌진만 했던 것은 아니다. 나름의 경험들이 쌓였고 그것들을 통해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일들을 늘려갔다. 나도 사회인으로써 나만의 영역과 커리어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다. 언제까지 취미는 전시 보기요, 특기는 남의 돈으로 술 얻어먹기라고 쓸 수 없기 때문이다.(작가라고 치켜 세워지는 것은 덤) 조그만 공간 피그헤드랩을 만든 것도 그런 이유였을 것이다. 개인적인 취미들부터 팀프로젝트, 그리고 결국 피그헤드랩이라는 공간까지 열게까지 첫째는 나의 영역을 위해, 그 다음으론 새로운 판을 원하였다. 평일 낮에는 회사를 다니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공간을 운영하였다. 물론, 생각보다 힘에 불인 것은 사실이다.

그래 충분히 답답할 만도 했지. 다시 다툼의 결과는 결국 술을 거하게 한 김에 “쓸데 없는 짓 아니야!”라고 한번 육하는 일로 일단락 되었다.(그 와중에 졸아서 말 끝이 사그라들었다.) 그녀는 미안하다 사과하였고 나는 당분간 눈치 좀 봐야할 것이다. 내가 무엇인가를 도전한다는 것이 비단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그리면서도 혹자의 눈에 쓸데없는 짓으로만 보인다는 것은 나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여기서 나는 무엇인가를 떠올렸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어떤 논리의 과정을 거쳐 나오는 것임을 느낀 것이며, 방금 표현한 것처럼 혹자의 관계에서 결정 지어진다는 것이다. 가령 이번 일만 하여도, 여자친구에게 <지금 이시각>의 계획을 장황하게 늘어놨을 때 그녀가 갑갑해 하는 것을 보면 다투게 되었던 것인데, 그 순간 그녀는 나를 둘러싼 어떤 혼자로서 존재하였다. 일종의 환경인 것이다. 그리고 그 환경에 부합되지 못하였을 때 쓸데없는 짓이 되어 버린다. 다시, 쓸데 없음이란 나와 환경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그 자체만으로는 결정지를 수 없는, 마치 빛이 있으라 라고 창조주가 이야기하였을 때 빛이 딱 생긴 것처럼 그것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빛의 존재와 이용,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할 때에 빛은 쓸데를 논하게 된다. 그것이 존재함에 따른 쓸데의 유무는 그 존재 자체의 객관성으로는 구분할 수 없지만, 그것이 환경과 상호 작용을 벌이게 될 때 쓸데라는 목표 의식이 탄생하는 것 아닐까. 쓸데 없음이란 평가는 그것의 본연의 주체가 아니라 현상에 따른 결과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렇게 치면 누군가가 말했던 ‘예술은 쓸데없는 짓, 쓸데없는 짓이 예술이 된다’란 표현은 참으로 잘 표현한 것이다. 쓸데없는 짓이란 환경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공통의 목표를 잡을 수 없을 때 발생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관계의 감소, 공급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그것은 세상과 단절될 것이며 갈수록 또 영원히 줄어들어 갈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감소는 누군가의 소장욕구를 불러 일으킨다. 그것이 예술 산업의 특징이라고 하는 희귀성, 독특함에 대한 집중일텐데, 아이러니하게도 줄어들게 되는 쓸데없음의 가치와 희귀할수록 수집욕구가 올라가는 사람의 욕망을 일종의 그래프로 표현한다면 어떤 접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접점에 있는 것이 바로 수요를 일으키고 예술 산업이 탄생하는 지점이란 생각을 해본다. 그것은 바로 쓸데의 교차점, 쓸데 없음이 수집가의 수요와 딱 맞아지는 쓸데 있음의 순간이 되는 것이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는가. 그래 그렇게 치면 그것은 한 순간이다. 쓸데가 존재해 버리는 순간 예술은 사라질 것이고, 예술이 사라지는 순간 쓸데 없음은 어딘가에서 다시 등장할 것이다. 존재의 가치를 환산하였을 때 그 순간의 교차점으로만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신비로움처럼 그것은 존재하되 존재하니 않는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다. 뭔가 수수께끼로 내기 좋을 듯한 생각이다.

한 8년 전인가, 과거 내가 누군가와 작업과 관련된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났다. 그때의 나는 모든 작업이 다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지금도 어떤 의미로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무튼) 이때는 내 작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어떤 비밀과 사연들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그러던 와중 작업이 잘 안 풀리고 곤란함을 느끼던 참에, 어떤 작가에게 대화를 요청하였다. 그의 시선은 매우 믿을만 했었다.

당시 그는 내가 SNS에 동시에 올린 두 개의 작업을 비교하며 한 개의 작업은 매우 완성도가 있었으나 다른 한 개의 작업은 너무나도 별로 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굳이 이 두개를 한 시기에 올린 이유가 있느냐 물었다. 나는 두개의 작업이 다 나름의 사연이 있다며, 이 작업은 이러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있고 저 작업은 저러저러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이 두 개를 올린 것도 나름에는 이런 저런 이유들이 융합되는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면 분명 두 작업 다 좋다는 얘기를 못들으니 오기가 생겨서 했던 말일 수도 있었다. 논리가 비어 보이는 것을 못 참았으니깐. 아무튼 그는 내 말을 한참 쭉 들더니 밀하였다. 꼭 그렇게 하나하나 이유를 만들어야 하겠냐며, 억지로 만들어 내는 것 같다고. 다분히 충격적이었고 또 그 일 이후 방황하기도 하였다. 내가 쓸데없음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해서 모든 것의 쓸데를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쓸데 있음을 만들어 내려는 것이 얼마나 인위적이고 불안정한지 느끼게 되었고, 그 쓸데 있음이 자연스럽게 발현하는 지점이라는 것을 한 사람이 어떻게 해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그 모든 쓸데를 만들어 내는 관계 형성이 또 얼마나 피곤하겠는가. 어려운 생각을 할 것도 없이, 요즘 나도 젊은 작가들을 만나면 그런 느낌을 갖고는 하는 것이다. 꼭 모든 것이 쓸데 있을 필요는 없다고.

그런데 웃기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무엇인가를 시도할 때 “나는 쓸데 없는 짓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여전히 무엇인가 쓸데를 생각하고 시도를 하지만 세간의 평이 쉬쉬하면 “그래 원래 쓸데없는 짓도 해보는거야...”라고 하면서 좀 풀이 죽을 뿐이지, 여전히 나의 시도들이 언젠가 어떤 가치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지금 이시각>의 경우도 그런 것이, 어떤 큰 태제에서는 어마어마한 큰 목표나 비전을 갖는 것은 아니다. 참여 작가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몇 달만 무엇인가 모아볼까? 그러면 모아서 보는 재미가 쏠쏠하지 않을까? ” 정도로, 다소 소박하지만 재밌게 읽을 거리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게 쉬울 지 어려울 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무슨 어마어마한 목표나 큰 비전을 제시할 생각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딱 재밌으면 좋겠다. 쓸데의 유무를 떠나 요즘 내가 문화예술계에 임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러하다. 다시 쓸데의 유무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엇이던 쓸모 있게 만드는 것은 피곤한 일이고 지금은 굳이 집착하고 싶지 않더라. 어떤 의미로는 신만이 가능할 수도 있다보니. 그래서 “재밌으면 좋겠다”라는 다소 작은 목표 하나를 염두 하게 된다. 따지고 보면 근래 내가 인연을 맺는 사람들이 참 그렇다. 멀리서 보면 ‘어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저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열정적으로 재밌게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고나니 나름은 참 멋져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나도 지금 하는 이 일이 재밌었으면 좋겠다.

사진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중



사진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중





끝. 내는 해피 앤드,

이 규 환
창작가

2월 한파가 한차례 지나가고 회사 앞 광장에는 여전히 크리스마스 전구가 반짝였다. 코로나19 감염자는 줄어들지 않고 조금씩 늘어났다. 봄이 오기를 허락하지 않은 듯 궂은 날씨가 지속되었지만 해지는 시간만큼은 점점 늦어져 착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오리는 사무실 파티션에 가려진 테이블에 한 남자와 마주 보고 앉아있다. 오리는 검정 모나미 펜을 들고 사직서에 서명을 하고 있었다.

<상기 본인은 ‘자진 퇴사’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을 결심한 후했던 고민과 걱정에 비하여 상상 이상으로 훌가분하게 쓰였다. 퇴직 사유로 생각했던 많은 생각들은 문서에 적힌 사무적인 항목에 흘어져 사라졌다. 내 오랜 정체성이었던 소속과 직책은 사직서에 적는 순간 내 것이 아니게 되었다.

“오리씨 왜 갑자기 퇴사하시는 거예요? ” 사직서를 건네받은 담당자 김대리가 물었다.

“갑자기는 아니고 제가 해야 할 것이 있어서요.” 오리의 입술에서는 머뭇거림이 느껴졌다. 사적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다. 어차피 공감받지 못할 오리의 일이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계산되어서 나오는 거죠? ” 오리가 말했다.

“네. 계산되어서 다음 달 월급에 포함되어 나올 거예요. 확인 해보니 작년에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네요? ”

오리는 미소만 지을 뿐 말을 아꼈다. 김대리는 말을 아끼는 오리를 보면서 말했다.

“오리씨 차나 한잔 할까요? ” 김대리는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을 피해 회의실로 안내했다. 명패에는 ‘회의실’이라고 적혀있었지만 회의실 다운 것은 직사각형 6인석 회의 테이블과 의자가 있을 뿐, 온갖 잡동사니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아직은 부족한 회사의 모습을 보며 오리는 옛날 일을 생각했다.

오리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운이 좋게 자회사가 설립되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오리는 이제 안정된 직장을 얻었다며 기뻐했다. 씀씀이는 커졌고 천원 이천 원도 꼼꼼히 적던 가계부는 쓰지 않게 되었다.

비록 야근과 주말 당직, 주 7일 근무도 있었고, 저녁 10시에 혼자 남는 일이 종종 있었지만, 정규직 전환 후 수당이 따로 책정되어 일한 만큼 급료가 더 나오게 되었다. 오리의 직급은 위로도 아래로도 없는 혼자 시설 관리하는 일이었다.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65세 정년까지 있을 수 있었다. 혼자 맡아오던 일이었기에 굳이 인수 인계하여 넘기기에는 껄끄러운 일이기 때문이었다. 근무도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고 오리가 가진 재능과는 상관없는 그저 자기 할 일만 수행하면 되었다. 그럼에도 오리는 불안에 떨었다. 나이 37세. 자신의 손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40대가 다가오고 있었다.

오리는 회의실로 들어가 플라스틱 등받이로 만들어진 싸구려 의자에 앉았다. 김대리는 맥심 커피 믹스를 타서 오리의 앞에 놓았다.

“믹스 커피는 퇴직하고 나서도 계속 마실 것 같네요. 중독되었어요.” 오리는 설탕 커피로 끈적이던 입을 다셨다.

“그렇죠. 믹스 커피를 마시는 건 습관인 것 같아요. 뻔한 맛인데 없으면 또 허전한.” 김대리는 말을 이어나갔다. “그거 알아요? 오리씨가 이 회사에서 최초로 퇴사하는 거예요.” 김대리가 말했다.

“진짜요? 최초라니 기분이 좋은데요. 어디서 최초의 타이틀을 따보겠어요.” 오리가 말했다.

“확실히 회사 문제는 아닌 거죠?” 김대리는 잠시 빈 컵을 보고는 말했다.

“네. 분명 회사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회사 안에서 나는 전혀 성장할 수 없어요. 앞으로 정년 때까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막막하거든요. 회사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나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오리는 오랫동안 생각해 온 것을 막힘없이 이야기하였다.

“그거 요즘 MZ 세대들이 퇴사하는 이야기와 비슷한데요.” 김대리가 말했다.

“MZ 세대요? 20대들 이야기하는 건가요?” 오리가 말했다.

“아니요. 80년생과 90년생을 이야기하는 밀레니얼과 2000년 이후의 출생한 Z세대를 합쳐 MZ 세대라고 한데요.”

“아 그러면 마침 저도 MZ 세대이긴 하네요. 그래서 나가고 싶어진 건가?” 오리는 웃었다.

“물론 아니시겠지만 요즘 애들이 그렇데요.”

오리는 MZ 세대들의 퇴직이 이어지고 있는 사실은 뉴스를 통해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근로소득에 가치를 두기보다는 자신의 성장과 가능성을 믿고 불확실성에 뛰어드는 세대들이었다. 오리는 그 모습을 보고 과감히 뛰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가졌다.

“지금은 시설관리로 일하고 있지만 내 마음과 내 감정으로 작품을 만들고 싶거든요.”

“전에 이야기하셨죠. 작품 활동을 계속하시겠다고요.”

“네 물론 직장을 다니면서 할 수 있지만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어떤 점에서요? ”

“내가 창작을 하는 감각을 계속 잃어 가고 있거든요. 점점 사라져 가요. 내가 기능인 인지 창작인인지 모르게요.” 오리는 자신의 손을 쳐다보며 주먹을 쥐었다 펴보았다. 뻣뻣해진 손에서 뚜둑 소리가 나며 주름진 손등은 탄력을 잃어버렸다.

“그러시군요. 그렇지만 결혼도 하셔야 할 테고 돈은 어떻게 버시려고요.”

“그게 걱정이긴 해요. 그렇지만 월급을 받아서는 평생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돈은 모이겠지만 저의 영혼은 죽어가겠죠. 그래서 회사가 아닌 내 작품을 만들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뭐 대충 예전에 이야기 들어서 작품 하는 건 알지만...”

“네 전시는 하나의 과정이고요. 저는 소설도 쓰고 싶고 이모티콘 그려서 내놓고 싶기도 하고요. 저의 이야기를 다양한 매체를 사용해서 보여주려고 해요.”

오리는 김대리의 머리 뒤를 바라보고 있다. 김대리는 그 시선을 따라 뒤를 돌아보았고 시선 끝에는 현장 근로자들이 가져다 놓은 정리되지 않은 잡동사니만 쌓여 있었다. 김대리는 다시 오리의 눈을 보았다. 오리는 이곳을 보고 있지 않고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이방을 넘어 다른 곳을 향한 눈은 세상을 담으려는 듯 커 보였다.

“알겠어요. 그럼 나중에 전시하면 불러주세요.”

“네 물론이죠. 꼭 연락드릴게요.”

오리는 불안하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한 마음이 온화하게 몸을 감싸 안았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8년간 진지하게 창작을 하고 싶다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다.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태워 마음속 깊고 어두운 우물에 불을 밝히고, 깨끗한 마음을 길어 올려 내고 싶다. 오직 이 하나의 생각이 지쳐 누워도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다. 물론 당장 두! 둉! 등! 장! 하며 화려한 조명 속에서 데뷔하여 대중들에게 환호를 받으며 나타날 수는 없다. 오랫동안 작품을 준비하여야 하고 직장 생활하며 부족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했다. 불확실성에 몸을 던져 성장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나아가야 했다. 이것은 마치 MZ 세대의 그것과 같았다.

“뭐 어때. 베틀 힘을 모으려고 회사에 다녔던 것 아냐? ”

오리는 회의실을 나오며 혼잣말을 하였다. 신기하다. 고민으로만 두고 있을 때는 세상이 너무 무서웠다. 회사를 벗어나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다는 것. 따박따박 나오던 꿀꿀 같은 월급이 끊긴다는 것. 앞으로는 누구의 지시로 움직이는 몸이 아닌 것. 내 몸은 오직 나의 지시로 일을 만들어가고 움직인다는 사실은 당연한 것인데 왜 몰랐을까? 내 몸의 소유권이 나에게 돌아온 지금은 세상이 그렇게 무섭지 않았다.

춥기도 덥기도 눈이 오기도 했던 겨울의 끝자락. 마지막 당직이 끝나고 소등을 하며 생각했다. 인터넷에 퍼진 밍으로 퇴사자들이 업무 컴퓨터 바탕화면에 띄워놓고 간다는 그것을 나 역시 되뇌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저의 행복을 찾아 떠납니
다. 안녕 7년간 앉았던 내 자리. 안녕 내 사무실. 안녕 수 천번 지나왔던 출퇴근길.
안녕 내 동료들. 안녕.
오리는 이제 자유예요.’

끝.내는 해피엔드,



무심한 듯 애정 어리게 바라보기

이은우

그림 그리는 사람 /
본업과 부업 사이 어딘가에
서 표류 중

구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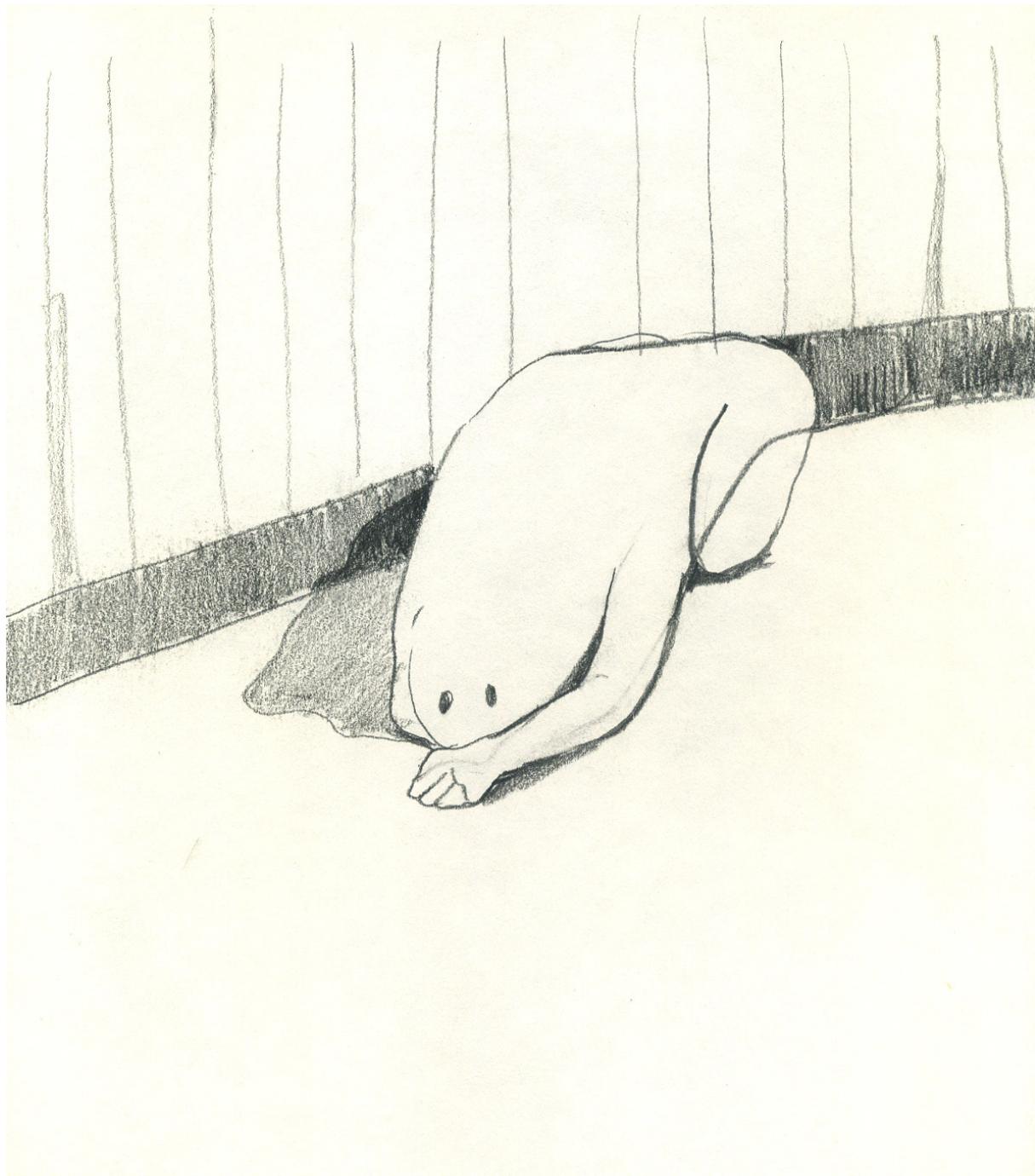


분홍 광음



지금 이시각 2022. 5

꿈틀꿈틀



속이다





우리 결혼할 수 있을까?

석민정

삼십대/
문화예술인/
교습소운영

ep. 1 40살에 결혼할래?

2012년이었다.

40살까지 결혼할 사람 없으면 나랑 할래?

그래! 뭐 그때까지 결혼 못하겠냐?

학교 담배친구였던 이 애가 실없는 소리를 한 그 순간 나는 웬지 이 아이와 결혼할 것임을 직감하였다.

시간이 흘러 결국 연인이 되었고, 결혼하기로 한 나이는 점점 낮아져 결혼은 내가 서른 둘, 이 아이가 서른 다섯에 하기로 한다. 멀기만 할 줄 알았는데… 시간은 흘러 간다. 나는 계속 늙고 나이를 먹는다. 정말 속절없다.

2022년 나는 서른 둘이 되었고, 이 아이는 서른 다섯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2021년 여름에 헤어졌다.

ep.2 헤어진 이유_1

2019년 대학원을 졸업하고 새로운 작업실을 구해야 할 시기, 이화동 벽화마을의 작은 이층집을 월세로 구했다. 나름 방 세개에 창고까지 떨려있는데 1000/45. 무지막지한 언덕 위에 있다는 것 빼고는 좋은 조건이었다. 방 하나는 그 애의 생활방, 그리고 방 두개는 각자 작업실로 쓰였다. 불과 5~7분 거리에 있던 내 집을 두고 나는 자꾸 작업실로 올라갔다. 작업도 했겠지만 그 애와 세미신혼놀이에 빠졌던 것 같다. 일이 끝나면 장을 봐 작업실로 올라가 저녁을 만들어먹었고 함께 키우는 고양이를 입양했다.

이게 발단이었다.

결혼 전 동거정도야. 우리가 한 게 반동건데…

2021년 언니가 먼곳으로 발령이 나면서 7년만에 집을 분리하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운영하던 교습소 또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조금이라도 월세를 아껴보자 고민을 하게 된다.

내 작업실집을 새로 이사갈 교습소 한켠으로 옮기고 같이 한 집에 살아보자는 말을

내가 먼저 꺼냈다.
 별것도 아닌데 약-간 떨렸다.
 이게 발단이었다.
 결혼 전 동거정도야. 우리가 한 게 반동건데…

ep.3 쉬어가는 키치쵸치 길 이야기

대학교 4학년 두 사람 다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할 시기. 그 애는 내 바로 윗층에 살았는데. 자연스럽게 등하교를 같이 하게 되었다.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학교 지형덕에 살던 저렴한 월세방도 산 중턱에 위치했는데, 학교와 이어진 길이 없어 학교 밑으로 한참 내려와 또 학교를 마주보는 정도 높이의 원룸촌으로 올라가야하는 것이었다. 학교 건물중에도 정상에 위치한 미대건물에서 원룸텔의 직선거리는 아마 5분도 안 되었을텐데, 매번 땀을 뻘뻘 흘리며 등하교하길 여러번.

이쪽으로 가자.

잔머리를 잘돌아가는 그 애는 후문으로 통하는 길에 미로같은 골목들을 지나 가장 빠르고 쉽게 집에 도착하는 방법을 찾아낸다.

아주 조용하고 품위가 느껴지는, 그러면서도 아늑함과 고즈넉함을 가진 동네였다. 이웃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인 후문쪽으로 다니는 학우들은 거의 없었기때문에, 그 이질적이고 조용한 길목을 우리는 매일 걸었다.

뒷골목이라고 부르기가 애매해, 우리는 그 길을 키치쵸치라고 부르기로 했다. 시끄럽고 번잡스러운 학교를 벗어나 그 애와 걸었던 그 조용한 길은 나와 그 애만이 존재하는 듯 착각하게 만들었다.

뜨거웠던 2013년 여름방학. 밤샘작업 후 오전 11시경에 찁찝하고 몽롱한 상태로 나와 키치쵸치 거리를 걸으며 매일 보던 골든리트리버에게 방울토마토를 던져주었던. 그때를 간혹 생각한다.

나는 사실 그때 설렜어.

ep.4 헤어진 이유_2

내 작업실의 짐을 빼니, 1층 공간은 영락없이 신혼부부 집이었다. 물론 가구들은 다 낡았고, 의도치 않은 미니멀살림이었지만 두 사람 다 그런것을 개의치 않는 성격이었기에 노프라블럼이었다. 일상생활은 평소와 같았고 매일이 평범하게 흘러가는 듯 했다.

동거를 하겠다고? … 그래서 결혼은 언제할건데?

아빠에겐 비밀로 했다. 딸아 나중에 결혼하기 전에 동거는 잠깐이라도 해보고 결혼해야해 라 말하시던 관대한 엄마마저 마음이 조급해지셨다. 쿨하게 그래 동거해봐라 하셨지만, 확실한 계획을 분명히 들으셔야했다. (그 애는 너랑 결혼할 마음이 있대?)

나는 마음을 굳게 먹고 쏟아냈다.

오빠 우리 내년에 결혼할 수 있어?

저금은 좀 하고 있어?

운전 연습은 언제 할거야?

이직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

네 인생을 회생할 자신 있어?

그애는 긴 침묵 끝에 이별을 말했다.

난 뻥 차이고 말았다. 동거 시작 한달만의 일이었다.







끝나지 않는 경쟁

손승범
시각예술가 /
팀 중구난방

공모 준비의 연속이다.

작가들에게 공모전은 자신의 작업을 인정받을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공모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작품의 세계관을 정리하고 적립하면서 자신의 작품세계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3, 4월 꽃들이 만발하는 봄을 시작으로 그동안 해왔던 작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공모를 지원하고 낙엽이 지는 가을 즈음엔 하나의 자격증처럼 되어버린 여러 레지던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면서 고된 기다림의 시간들을 견뎌내기도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해 한 해 작업 생활에 새바람을 불어넣어 활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하고,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 자신을 자체하거나 해당 기관들의 결과를 부정하며 속 쓰린 시기를 보내기도 한다. 예민한 사람들은 공모의 당락으로 인해서 그 해의 분위기를 이끌어 내기도 한다.

공모전이 없었다면 작가들은 과연 자생하며 작업을 지속할 수 있을까. 공모에 매번 미끌어지면서도 그 끄나풀을 놓지 못하던 때, 아예 공모전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 대해 상상한 적이 있다. 오히려 순수하게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작업을 지속하며 살고 있는 모습들이 그려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밤을 새워가며 공모전에 출품하기 위한 신작을 제작해야 했다. 이제 불혹의 나이를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공모전들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작업의 근간을 채울 수 있는 방식이 유효하게 작동한다는 것에는 감사한 일이다. 하지만 점점 지원 가능한 공모들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것을 짐작해 보면 공모가 없는 삶은 좀 암담하기도 하다. 공모전이 없다면 이 지난하고 고루한 예술가의 삶을 견뎌낼 수 있을까.

대학 시절부터 ‘중앙미술대전’을 비롯한 (현재는 사라진) 수많은 공모전을 여러 차례 준비해 온 경험이 있다. 핸수로 따져보면 어언 13년째, 기약도 없지만 매년 연례 행사와 같은 공모에 매달려 오며 살다싶이 하였다. 그래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잊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작업의 연속성을 갖게 해 주었고 어느 공모전에서는 당선이 되어 잠시나마 금전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기도 하였다.

이러한 혜택들로 인해 작가들에게 공모전의 필요성은 더욱 짙어져 가고 있고 그에 따른 경쟁률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레지던시의 경우 작업실을 1년동안 (기관마다 다름) 무상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비평가와의 매칭, 오픈스튜디오, 전시 등 작가가 1년 동안 이루고 싶었던 과업들을 펼칠 수 있기에 매년 상상을 초월하는 경쟁률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높아진 경쟁률은 기존의 레지던시가 지녔던 ‘작업실이 필요한 작가들에게 공간을 제공’ 하는 취지와는 다르게 이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써 의미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 지역마다 크고 작은 레지던시들이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사실 신진작가들에게는 레지던시의 진입장벽이 높기만 하다. 또, 레지던시의 특성이나 입주작가군에 따라 급이 나누어지기도 한다.

공모라는 것은 작가들에게 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하게 하고 창작의 의욕을 고취시켜주는 순기능이 존재한다. 그 과정속에사 경쟁이라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지만 언제까지 매년 입시를 치루는 것과 같은 강도높은 삶을 버텨낼 수 있을까.



이 페이지는 당신의
것입니다.
문화예술인이면 대체로
누구나 환영합니다.

pigheadlab@gmail.com
01082339033
A4, 1~2페이지 내외
혹은 그 이상
어차피 적당히 편집함



지금 이시각 TIME NOW_2022. 05, 첫번째

발행인 : 오종원

발행처 : 피그헤드랩pigheadlab

5월 참여 필진 : 석민정, 손승범, 이규환, 오종원, 이은우

www.pigheadlab.com